



2021. 1. 10. 제48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편집 발행인 김동환

031-975-1885, 1884(fax)

<http://samae.yonsei.ac.kr> / love3@yonsei.ac.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해

예레미야서 31:7-9; 에베소서 1:3-14; 요한복음서 1:10-13

2021년, 신축년(辛丑年)입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어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여전하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새해이니만큼 신앙인들이라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가져야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코로나19 시기를 살펴보면, 물론 잃은 것도 많지만 의외로 얻게 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얻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 관계의 돈독'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질수록 가능한 한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라고들 합니다. 이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따라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억지로 마련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갖지 못했던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며, 가족 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할애와 노력은 사실 현명한 비신앙인들도 깨닫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 관계의 돈독을 위해 현명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적 가족 관계의 돈독'입니다. 영적 가족 관계의 돈독을 위한 첫 단계는 신앙인 모두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돈독입니다. 코로나19 시기는 세상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적 안목으로 새롭게 보면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그 위협적인 코로나19가 의외로 만들어준 최상의 시기입니다. 신앙인은 이것을 깨달아야 하며,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신앙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새해에는 나의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 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바쁘다고 제대로 못했던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묵상(큐티)의 시간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육적 가족 관계도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코로나 19 시기를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이며, 현명한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처럼 편히 부르게 되었나요?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나요? 만약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아마 불경죄로 종교 재판을 받아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이신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도 실제 외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이유로 2천 년 전에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함들을 했었는데,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으며,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그렇게 감히 쉽게 말하고 있나요?

바로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엡 1:5).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이신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친자녀는 오직 예수님뿐이시며, 우리는 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가족 관계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예수]를 믿어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요 1:12-13). 올 한해 우리 모두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되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가로 우리가 입양됨으로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 양녀로 입양되어 하나님과 영적 가족 관계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엡 1:11). 그렇다면 영적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삶으로 끝나려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유산 상속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유산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 상속입니다.

이게 믿기시나요? 와 닿으시나요? 우리가 이 특권의 상속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엡 1:13-14). 우리가 상속 받았음을 보증하여 성령께서 날인해주셨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성령께서 담보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부디 올 한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특권을 누리며, 성령님이 담보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가족 관계를 우선적으로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자체가 그러하기에 그 영적 가족 관계가 돈독해야만 혈육의 가족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관계가 바로 서야만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축년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우선적으로 돈독히 바로 세우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독한 관계 위에서 육신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 많고 복잡한 이 세상이지만 성령님이 담보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밝고 힘차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입양되지 못한 나의 육신의 가족을 위해, 친척을 위해, 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 동 환(2021. 1. 3.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